



주유소의 대형화·복합점포화 서두는 日本석유업계 타업종의 신규참여에 대비

日本석유업계는 88년부터 휘발유생산지도제의 폐지, 주유소설치자유화등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유소의 대형화를 서두르고 있다.

日本石油등 석유元賣회사들은 석유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로 주유소경영에 상사와 슈퍼마켓등 다른 업종의 참가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에 총 2천여억円을 투자, 주유소의 증개축과 복합점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日本石油는 앞으로 3년간에 걸쳐 모두 2백10개소의 대형주유소를 신설하는 한편 自社 직영주유소의 절반에 상당하는 9백개소를 증개축, 대형화시키기로 했다.

새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800~1천평방미터로 표준주유소의 약 2배이며, 월간 휘발유판매목표량은 1백kl로 日本石油 全주유소 평균의 2배에 해당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연간 2백억円 정도에 머물렀던 주유소관련투자액은 앞으로 연간 5백억~6백억円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昭和셀石油도 앞으로 5년간에 걸쳐 영세주유소의 통합과 증개축을 통해 6백~8백개의 주유소를 대형화

할 계획이다. 昭和셀石油의 신규시설투자액은 2백억円으로 종래의 2배에 해당된다.

共同石油도 수도권과 大阪등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지역과 계열주유소 인근등에 역점을 두고, 주유소를 통합하여 석유유통합리화와 대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出光興産도 월간 휘발유판매량에서 종업원 1인당 25kl를 최저목표로 정하고 주유소를 대형화시키는 한편 효율성이 낮은 주유소는 렌트카 영업소로 전환시키거나 고층화하여 스포츠시설이나 소형 아파트를 병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옛소石油, 모밀石油도 대형주유소의 신설과 증개축 또는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모밀石油는 앞으로 연간 40개소의 주유소를 신설하고 1백50개소를 증개축하여 전국 3천8백개의 주유소중 70% 정도를 새로운 형태로 바꿀 계획이다.

日本石油元賣회사들은 주유소의 대형화·고층화와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주유소와 편의시설, 식당등을 병설하는 이른바 복합점포화나 소매점포화를 추진하고 있다. □



便宜店병설 주유소